

동의사상 금낭보결(東醫四象 錦囊寶訣)에 대한 문헌적 고찰

유준상^{1,2,*} · 신미란³

¹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교수, ²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
³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교수

Abstract

Bibliographic Study on Dongeuisasang Geumnangbogyeol

Yu Jun-Sang^{1,2,*} · Shin Mi-Ran³

¹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²Research Center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³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paper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tents of 『Dongeuisasang Geumnangbogyeol(東醫四象錦囊寶訣)』 with previously published books on Sasang medicine.

Methods

『Dongeuisasang Geumnangbogyeol(東醫四象錦囊寶訣)』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previously published 『Dongeuisasangsinpyeon(東醫四象新編)』 and 『Donge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Results and Conclusions

『Dongeuisasang Geumnangbogyeol(東醫四象錦囊寶訣)』 is a book related to Sasang medicine, written by the author Park Byeong-Gil in 1961 and published by Haenglim Seowon in 1961. Mainly, the contents of 『Dongeuisasangsinpyeon(東醫四象新編)』 were transcribed, but it is meaningful in that he recorded the body shape of Sasang constitution and the prescriptions he experienced clinically. 18 Taeumin prescriptions, 43 Soeumin prescriptions, and 13 Soyangin prescriptions were recorded, and it could be seen that in the Taeumin prescriptions, the brain-nervous system disease was recorded, and in Soeumin prescriptions and Soyangin prescriptions, digestive system diseases were mainly recorded.

Key Words : Dongeuisasang Geumnangbogyeol(東醫四象錦囊寶訣), Dongeuisasangsinpyeon(東醫四象新編), Sasang Constitution

Received 05, December 2022 Revised 05, December 2022 Accepted 08, February 2023

Corresponding author Yu Jun-Sang

80 Sangjidaegil Wonju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Tel: (82)33-741-9203, Fax:(82)33-741-9141, E-mail: hiruok@sangji.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緒論

東武 李濟馬先生 사후에 나온 여러 가지 서적들 중에서 특히 元持常이 1929년 저술한 『東醫四象新編』¹⁾은 이후 여러 서적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東醫四象診療醫典』, 『東醫四象要訣』, 『家庭必備 四象要覽』 등이 존재한다. 또한 『東醫四象 錦囊寶訣』도 『東醫四象新編』을 이은 책들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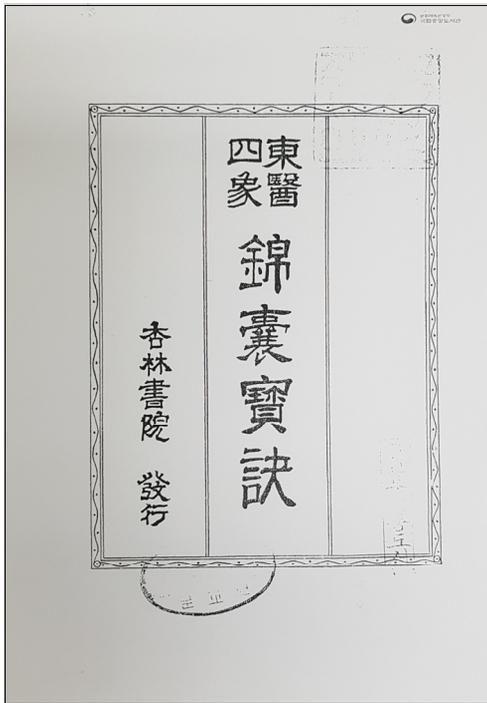


Figure 1. Dongeuisasang Geumnangbogyeol (published in 1961)

『東醫四象 錦囊寶訣』은 한의계 뿐 아니라 사상 의학계에도 생소한 서적인데, 국립중앙도서관 고의서로서 제공되고 있는 책이다. 본 서적은 杏林書院에서 단기 4294년(서기 1961년) 4월30일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서적에 따르면 행림서원 사장이었던 李泰浩 編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서문의 내용을 참고하면 朴炳吉이 저자로 되어 있다. 서적의 규격은 6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6.2×18.0cm 등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된 ‘한의학 고서목록2)’에서 본 서적을 검색해 보면, 李泰浩 編의 등사본으로 198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朴炳吉 編으로 영인본 335쪽과 DB로 전산화된 것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청한의학박물관에 소장된 것, 전남대 도서관에 DB로 전산화된 것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적의 페이지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책의 저자, 책의 구성과 내용을 『東醫四象新編』을 비롯한 관련 서적과 비교 분석하고, 저자의 자작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저자

본 서적의 저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자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확인하여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밝힌다.

2. 서적의구성체계

본 서적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확인한다.

3. 본문의특징

본문의 특징을 관련서적인 『東醫四象新編』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다.

III. 研究結果

1. 저자

서문에서 발행한 시기를 단기 4291년(서기 1958년)이라고 표현하였고 월과 일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편

1) <https://www.nl.go.kr/korcis/search/searchResultDetail.do>

2) <https://info.medicclassics.kr/booklist/search>

자는 朴炳吉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박병길에 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 1, 2, 3권』³⁾을 확인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2. 서적의 구성체계

서적은 26.2×18.0cm 등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된 ‘한의학 고서목록’⁴⁾에서 본 서적을 검색해 보면, 『李泰浩 編』의 등사본으로 198 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朴炳吉 編』으로 영인본 335쪽이라 하였다. 그 외에 산청한의학박물관에 소장된 것, 전남대 도서관에 DB로 전산화된 것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에서 동의상금낭보결을 검색해 본 결과, 저자는 『朴炳吉 編』, 판사항은 등사본이며, 형태사항은 63장으로, 26.2×18.0cm으로 되어 있다. 전남대도서관과 산청한의학박물관에 문의한 결과,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와 일치한다고 확인을 받았다. 구성은 색인목록 2페이지, 서문 2페이지, 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본문에 해당되고, 마지막에 판권지가 실려 있다. 즉 본문에 해당하는 것은 126페이지에 해당되며, 63장이라고 표현한 것이 옳다⁵⁾.

편제는 1. 序文(p.1), 2. 四象正見表(p.5), 3. 諸病主藥回春(p.7), 4. 少陰人 要藥(p.12), 5. 太陰人 要藥(p.14) 6. 少陽人 要藥(p.16), 7. 病名難經鐵鑑序(p.18), 8. 四象辨論(p.20), 9. 四象經驗(p.23), 10. 四象口訣(p.33), 11. 通四象臟腑所在圖(p.34), 12. 通四象全體所屬圖(p. 34), 13. 東醫四象用藥彙分(外篇)(p.35), 14. 太陽人要藥設方/太陰人經驗方目錄/少陰人經驗方目錄/少陽人經驗方目錄(p.71), 15. 四象劑方(p.73), 16. 附 補遺方 壽世保元中(六方)(p.111), 17. 筆者經驗方 太陰人方(十八方)(p.113), 18. 筆者經驗方 少陰人方(四十三方⁶⁾) (p.117),

3) <https://info.medicclassics.kr/bookshelf/list/distBook/> 한국의학사료총서

4) <https://info.medicclassics.kr/booklist/search>

5) <https://www.nl.go.kr/korcis/search/searchResultDetail.do>

6) 본래 42方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세어보니 43方이어서 수정함.

19. 筆者經驗方 少陽人方(十三方)(p.128)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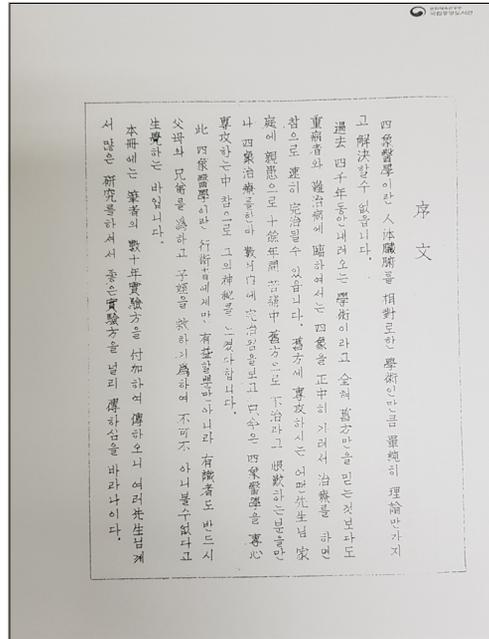


Figure 2. First page of pre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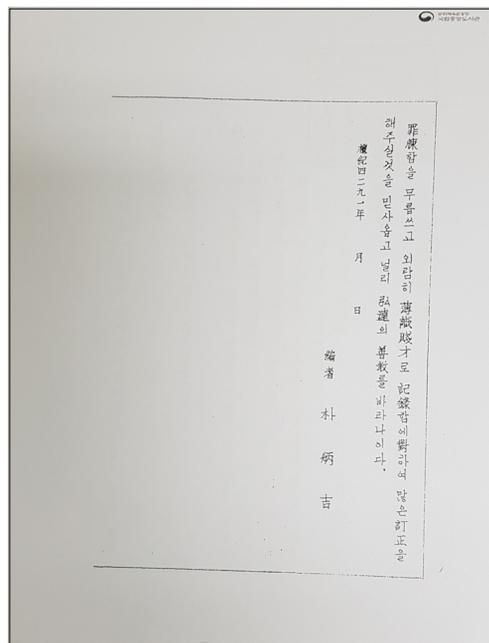


Figure 3. Second page of preface

Table 1. Comparison between Dongeuisangsinyeon and Dongeuisasang Geumnangbogyeol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 錦囊寶訣	備考
1	序文	序文	내용 다름
	×	四象正見表	
	×	諸病主藥回春	
	○	四象人藥	두 곳에 모두 사상인 요약편은 있으나 약제의 개수와 내용에 차이가 있음
	×	病名難經鑑序	
2	四象辨論	四象辨論	
3	四象經驗	四象經驗	
4	四象口訣	四象口訣	
5	通四象臟腑所在圖	通四象臟腑所在圖	
6	通四象全體所屬圖	通四象全體所屬圖	
7	四象人藥	○	
8	用藥彙分	東醫四象用藥彙分(外篇)	
9	太陽人藥	太陽人藥	
10	四象劑方	四象劑方	
11	經驗方	附 補遺方 壽世保元中(六方)	내용 다름
12	海松子論	×	
13	葛茸論	×	
14	血餘論	×	
15	×	筆者經驗方 太陰人方(十八方)	
16	×	筆者經驗方 少陰人方(四十三方)*	
17	×	筆者經驗方 少陽人方(十三方)	

*필자경험방 중 소음인 처방은 42方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세어보니 43方이어서 수정함.

3. 본문의 특징

첫째, 사상체질의 체형을 설명하고 있다.

서문에 이어서 「四象正見表」에서는 太陰人 體型, 少陰人 體型, 少陽人 體型을 언급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太陰人 體型⁷⁾

얼굴이 둥글고 몸 전체가 둥글며 눈이 크고 허리가 굽고 손도 둥근편이며 대개는 쌍꺼풀 눈의 둥근편입니다.

肉色에 있어서는 熱多人은 살이 검고 寒多人은 살이 무르고 熱多人은 뼈가 딱딱하고 살도 단단하며 굳습니다.

코가 대개 뚱뚱하고 주먹과 같습니다.

肉色이 검고 붉은 사람은 체질이 건강하고 색이 흰 사람은 약합니다.

그런, 태음인은 잔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2) 少陰人 體型

얼굴이 대개는 길고 방광이 넓어서 다닐 때 보면 방광이 뒤가 뽀죽하며 앞으로 숙입니다.

항상 명치가 차고 수족이 찬 것을 느끼며 추운 날에는 고기를 먹으면 소화 잘 되지 않고 위로 오릅니다. 성질은 항상 조용함을 좋아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 수양에 따라 다르기로 이만 생략합니다.

7) 『東醫四象 錦囊寶訣』, pp.5-7.

肉色은 누른 사람이 많고 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드럽고 연합합니다.

3) 少陽人 體型

얼굴이 길고 어깨가 넓고 가슴이 흉부가 벌어진으며 하초는 허합니다.

눈이 대개 크고 쌍꺼풀 눈이 많으며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코가 매부리 코에 코등이 날카롭고 코끝이 뾰죽합니다. 또 걸음을 잘 걷습니다. 외교술이 많아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좋아합니다.

또 울기도 잘 합니다. 肉色은 대개 희고 붉은 사람이 많습니다. 색이 흰 사람은 약한 이가 많고 붉은 사람은 튼튼한 이가 많습니다. 살이 갈갈합니다.

이상은 본인이 多年 경험한 바이옴기에 자세 기하오니 혹 참고되실까 하고 책에 올리나이다.

둘째, 사상인 약물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萬病回春』의 주요 약물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사상과 관련된 본초에서는 사상인 요약을 설명하고 있다.

『諸病主藥回春』에서는 『萬病回春』²⁾의 諸病主藥을 그대로 옮겨서 설명하고 있다. 中風卒倒 不能言語부터 諸骨硬까지 실려 있다.

『四象本草』에서는 각 체질별 要藥을 설명하였는데,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 순으로 나열하였다. 少陰人 要藥은 142종, 太陰人 要藥은 113종, 少陽人 要藥은 108종을 기록하였다. 『東醫四象新編』에서 소음인 요약 72종, 태음인 요약 109종, 소양인 요약 83종과 비교할 때, 『東醫四象新編』에 비해서 태음인 약물은 비슷하였고, 소음인 약물과 소양인 약물은 각각 25종, 70종 정도 추가된 것이 확인되었다. 단순히 『東醫四象新編』의 사상인 요약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같은 한약재도 있지만 서로 다른 한약재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茄子(가지)는 『東醫四象新編』에 소양인 요약으로 되어 있는데, 『錦囊寶訣』에는 소양인 요약이면서 태음인 요약이라 하였다. 또 태양인 약물인 蕎麥을 『錦囊寶訣』에서는 소양인 요약으로 설명하였고, 雲母의 경우 『東醫四象新編』

에서는 소양인 약물로, 『錦囊寶訣』에서는 태음인 요약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몇 개 약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셋째, 병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五臟病을 중심으로 위으면서 死病을 추가하여 6개의 항목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難經』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病名難經鑑序라고 적었고, 세로에는 病名難經鐵鑑序라고 적었는데, ‘5臟으로써 綱으로 해서 162症을 列함이라고 하여 表를 제시하였다. 즉, 肝病, 心病, 脾病, 肺病, 腎病과 死病의 총 6개病을 첫 행으로 하여 그 아래에 각 증상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難經鐵鑑』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難經鐵鑑』은 1729년 에도시대 히로오카 소센(廣岡蘇仙)이 난경의 해설서로 쓴 책이다. 卷之一 앞에 卷之首를 두어서 圖解를 하고 있는데, 難經鐵鑑序의 3페이지 앞에 이 도표가 실려 있다⁸⁾.

넷째, 내용에서는 『東醫四象新編』을 다수 그대로 인용하였다.

다음은 「四象辨論」으로서, 『東醫四象新編』의 「四象辨論」과 동일하다.

「四象經驗」은 太陰人,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병증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東醫四象新編』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東醫四象新編』에 마지막 문장이 太陰人 노인이 매일 머리를 빗는 내용인데, 이것을 순서대로 太陰人 순서 맨 뒤로 끌어다 놓아서 순서를 올바르게 맞추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모두 같다.

四象口訣도 『東醫四象新編』의 내용과 동일하다. 形貌, 臟腑, 性情, 病證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通四象臟腑所在圖와 通四象全體所屬圖도 『東醫四象新編』과 동일하다. 「東醫四象用藥彙分外篇」은 『東醫四象新編』의 「外篇 用藥彙分」과 동일하다. 다음은 太陽人 要藥設方으로 『東醫四象新編』과 동일하고, 太陰人 經驗方目録, 少陰人 經驗方目録, 少陽人 經驗方目録 또한 『東醫四象新編』과 동일하다.

8) 일본 와세다대학 도서관 자료 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ya09/ya09_00955/index.html

四象劑方도 『東醫四象新編』과 동일하다. 太陰人 太陰調胃湯부터 少陽人 加味地黃湯까지 실려 있다. 『東醫四象新編』 부록의 海松子論과 葛茸論, 血餘論, 『東醫四象新編』 跋은 실려 있지 않다.

이어서 『東醫壽世保元』의 補遺方を 기록하였는데, 이는 『東醫四象新編』에 없는 내용이다. 補遺方으로 桂附藿陳理中湯, 獨蔘官桂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豬苓白虎湯, 葛根蘿卜子湯, 瀉心湯의 총 6개 처방이 실려 있다.

다섯째, 필자의 사상의학적 경험방을 기록하였다. 사상체질별로 보자면 少陰人 處方 43개⁹⁾, 太陰人 處方이 18개, 少陽人 處方 13개가 기록되어 있다 (Table 2). 경험방의 처방명은 소음인 처방 43개 중 35개의 처방이 처방명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치증의 형태로 적혀 있다. 태음인 처방 18개와 소양인 처방 13개는 주치증의 형태로 적혀 있다.

필자의 경험방을 계통별로 분류하여 보면 태음인 처방에서는 뇌신경계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소음인 처방에서는 소화기계가 1순위로 높았으며, 소양인 처방 또한 소화기계가 1순위로 높았다 (Table 3).

4. 自作處方

1) 太陰人 處方 18方

(1) 治積聚上冲胸腹痛

桔梗 5錢, 龍眼肉 1兩 煎服

(2) 治咽喉生瘡 治蛔心下痛如神

桔梗不去 上1兩 煎服則效

(3) 治食前속쓰린데

使君子 5錢, 空心煎服如神

(4) 治流注痰癰二三年苦痛者神方

生白礬 2兩重 作末 溫水調服 十餘次 合瘡效

(5) 治陽事不足不起神方

新五味子 2斤 爲末 酒服百日以上則大效

(6) 治大小便不通

浮萍草 1兩 杏仁 大黃 各5錢 煎服

(7) 治久嗽不止症

白礬 五味子 各1兩 煎之 一匕式 徐徐服

(8) 治腰痛方

薏苡仁 3兩 芡實 2兩 水煎溫服

(9) 治眉落方

桑葉 7介 煎水 每月 洗之 1月後 重生如舊

(10) 治眩暈不可當

大黃 爲末 酒洗 3錢 調下

(11) 藏火大過攻目 或翳障痛

大黃 2錢 黃芩 3錢 水煎 空心服

(12) 治心氣不足 多悲 健忘 精神昏默 脚搖

遠志 石菖蒲 各2兩 煎服 多睡¹⁰⁾

(13) 治目腫大小成赤瘡

五倍子 1兩 研末 每服 3錢 水一盃 煎之 三分 先洗後眼點之

(14) 治耳聾

麻黃 1斤 以水五升 熬一升 去渣 熱膏 每服2 錢 酒服取汗有效

(15) 治止血止崩止帶通經除熱利小便

婦人月水不調 蒲黃末 2錢式 溫水下

(16) 治中風無汗惡寒

麻黃 杏仁 各5錢 煎服如神

(17) 治半身不遂

麻黃 3錢 杏仁 升麻 浮萍 各2錢 水煎服

(18) 治頭痛

香白芷 大者 2兩 爲末 爲丸 服如神

9) 저자는 소음인 처방이 42개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세어 보면 43개이므로 43방으로 고침.

10)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나, 睡로 보임.

Table 2. Prescription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Written by Park Byeong-gil

太陰人 處方(18方)	少陰人 處方(43方)	少陽人 處方(13方)
1. 治積聚上冲胸腹痛	1. 和中湯治痢疾神方第一方	1. 治浮症牛肉滯酒滯食滯
2. 治咽喉生瘡 治蛔心下痛如神	2. 和中湯治痢疾第二方	2. 治補氣不燥不熱
3. 治食前속쓰린데	3. 逆挽 ¹¹⁾ 湯裏急後重甚者	3. 治肺經生癰瘍
4. 治流注痰腫二三年苦痛者神方	4. 三生飲	4. 治陽癰陰疽 ^{**} 勿論何處
5. 治陽事不足不起神方	5. 獨蔘湯	5. 治目痛
6. 治大小便不通	6. 木香順氣散	6. 治耳聾
7. 治久嗽不止症	7. 加味六君子湯	7. 治風痰上攻頭目 眩昏 咽喉痛
8. 治腰痛方	8. 加味君子湯	8. 治一切煩熱 口乾作渴飲水 以此解之
9. 治眉落方	9. 下積散	9. 治幼年心絡爲暑所傷 每至暑思熱困倦減食
10. 治眩暈不可當	10. 厚朴湯	10. 治胃脘痛症
11. 藏火太過功目 或翳障痛	11. 治中湯	11. 治黃疸
12. 治心氣不足 多悲 健忘 精神昏默 脚搖	12. 加味二陳湯治白痰症	12. 治風熱頭痛神方
13. 治目腫大小成赤瘡	13. 加味二陳湯治菟結症	13. 治結陰症 主便血
14. 治耳聾	14. 加味平胃湯	
15. 治止血止崩止帶通經除熱利小便	15. 加味二陳湯治手足浮症	
16. 治中風無汗惡寒	16. 加味平陳湯治左臂痛	
17. 治半身不遂	17. 山查飲	
18. 治頭痛	18. 加味芍藥湯	
	19. 藿香二陳湯	
	20. 加味芍藥陳皮湯	
	21. 加味蒼靈湯	
	22. 白朮湯	
	23. 砂仁煎	
	24. 加味白朮湯治行步不仁	
	25. 加味白朮湯治中膝無力	
	26. 加味藿香飲	
	27. 厚朴湯	
	28. 三解飲	
	29. 加味君子湯小兒吐瀉 後有煩熱 口眼喎斜 驚風症	
	30. 加味白朮湯眼睛空然深去而有白苔者	
	31. 砂仁一物湯	
	32. 加味乾薑湯	
	33. 牽痰症	
	34. 痔疾靈藥	
	35. 小兒肝氣神效 乳滯腹痛 驚風青便	
	36. 靈散湯	
	37. 五香丸	
	38. 治上焦症 頭痛 目痛 口舌生瘡效	
	39. 治風濕脚氣 走注上攻 兩足拘急疼痛 或偏身痛	
	40. 治心腹痞悶痛 兩脇氣脹 痰涎上攻 咽噎不利 能行氣化酒食	
	41. 治遠年腸澀下血	
	42. 治肝癰	
	43. 治腰痛	

^{*}服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에 痛이 연결되어 腹痛으로 변경함.

^{**}疽로 되어 있으나, 앞에 陽癰에 대구가 되면 陰疽가 되므로 陰疽로 변경함.

11) 挽 글자와 유사하게 보이며, 정확한 글자는 알기 어려움.

Table 3. Classification of Prescriptions according to Systems and Sasang Constitution

	태음인 처방	소음인 처방	소양인 처방
소화기계	2	16	6
근골격계	1	8	0
소아과계	0	5	0
뇌신경계	4	3	1
오관과	3	2	3
적취, 流注痰癰	2	3	0
심혈관계	0	3	0
부인과계	1	2	0
호흡기계	2	1	1
생식기계	1	0	0
정신과계	1	0	1
전염병(한센병?)	1	0	0
補氣藥	0	0	1
합계	18	43	13

2) 少陰人 處方 42方

(1) 和中湯治痢疾神方第一方

白芍藥 3錢 厚朴 枳角 青皮 藿香 各1錢5分
砂仁 木香 乾薑 甘草 各1錢 水煎服

(2) 和中湯治痢疾第二方

白芍藥 3錢 當歸 川芎 各2錢 桃仁 1錢5分 檳榔 木香 各1錢 水煎服

(3) 逆挽¹²⁾湯裏急後重甚者

蒼朮 1錢 肉桂 1錢 檳榔 木香 人參 枳角 甘草 乾薑 各1錢 水煎服

(4) 三生飲 治中風 卒中(昏不知人口眼喎斜半身不遂 此方主之)

生南星 2錢 生川烏 生附子 各1錢 木香 5分 入生薑 水煎溫服

(5) 獨蔘湯 卒中者 急用 此湯 可扶元氣

人參 1兩 煎服 手足冷 脈沈伏者 加 附子2~3錢

(6) 木香順氣散 治中氣運

烏藥 香附子 青皮 陳皮 半夏 厚朴 枳角 各1錢
木香 砂仁 各5分 官桂 乾薑 甘草 各3分 入薑3片 氣不轉 加*子 沈香 各5分

(7) 加味六君子湯 食厥者過於飲食 胃氣自不能運化 故也

白何首烏 香附子 各2錢 木香 砂仁 白朮 陳皮 半夏 甘草 厚朴 枳實 各1錢 薑3棗2 水煎服

(8) 加味君子湯 肩臂痛

黃芪蜜灸 4錢 厚朴 2錢 陳皮 蒼朮 桂枝 甘草 各1錢 水煎入 棗2薑3 服

(9) 下積散 治蛔腹痛

苦楝¹³⁾根 2錢 唐木香 檳榔 乾薑 萵撥 各1錢 水煎空心服

(10) 厚朴湯 治泄瀉

厚朴 1錢5分 半夏 白朮 陳皮 檳榔 甘草 各1錢 水煎服薑3棗2

12) 挽 글자와 유사하게 보이며, 정확한 글자는 알기 어려움.

13) 苦楝根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苦楝子(川楝子)가 살충기능이 있어서 고려근으로 적음.

(11) 治中湯 治大便閉痞症

山查肉 3錢 半夏薑製 2錢 白朮 陳皮 各1錢5分 檳榔 唐木香 甘草 各1錢 薑3棗2 水煎服

(12) 加味二陳湯治白痰症

白何烏 黃芪蜜灸 5錢 半夏薑製 陳皮 赤芍藥 甘草 各1錢 薑3棗2 水煎服

(13) 加味二陳湯治菟結症

半夏薑製 2錢 黃芪蜜灸 陳皮 各1錢5分 川芎 赤芍藥 藿香 大腹皮 甘草 各1錢 薑3棗2 水煎溫服

(14) 加味平胃湯治胎上瘧疾

藿香 2錢 陳皮 厚朴 唐木香 檳榔 甘草 蒼朮炒 各1錢 水煎服 入 薑3棗2

(15) 加味二陳湯治手足浮症

厚朴薑製 2錢 陳皮 蒼朮 白何烏 甘草 各1錢 水煎服

(16) 加味平陳湯治左腎痛

黃芪蜜灸 各5錢 蒼朮 2錢 桂枝 厚朴 陳皮 甘草 薑3棗2 水煎服

(17) 山查飲 治冷積腹痛

山查肉 5錢 炮乾薑 2錢 水煎服 3次

(18) 加味芍藥湯治痢疾

白芍藥炒 蒼朮 白朮炒 陳皮 厚朴 檳榔 甘草 薑3棗2 水煎服

(19) 藿香二陳湯治吐症

藿香 蒼朮 各2錢 陳皮 1錢5分 厚朴 唐木香 檳榔 甘草 薑3棗2 各1錢 煎服

(20) 加味芍藥陳皮湯治泄瀉

白芍藥 3錢 陳皮 2錢 蒼朮 厚朴 甘草 各1錢 薑3棗2 水煎服

(21) 加味蒼靈湯治臂痛

蒼朮 2錢 威靈仙 陳皮 厚朴 桂枝 甘草 各1錢 薑3棗2 水煎服

(22) 白朮湯 治右膝不仁

白朮炒 5錢 桂枝 2錢 炮乾薑 1錢 水煎服

(23) 砂仁煎 治厭食症

玄胡索醋炒 砂仁 各5錢 水煎服

(24) 加味白朮湯 治行步不仁

白朮 5錢 石斛 2錢 陳皮 檳榔 各1錢

(25) 加味白朮湯 治中膝無力

白朮 5錢 乾薑 5錢 蒼朮 3錢 甘草 1錢 水煎服

(26) 加味藿香飲 治產後發熱

藿香 5錢 白何烏 黃芪 各3錢 白朮 甘草 各1錢 水煎服薑3棗2

(27) 厚朴湯 治小兒浮症

厚朴薑製 5錢 薑3 煎服

(28) 三解飲 無論男女老少 喘促咳嗽 用之神效

紫檀香 蘇木 紅花 各5錢 薑3 酒水相半煎服

(29) 加味君子湯 小兒吐瀉後有煩熱 口眼喎斜 驚風症

人參 2錢 白朮 白何烏 1錢5分 乾薑 桂枝 甘草 各1錢 日再服

(30) 加味白朮湯 眼睛空然深去而有白苔者

白朮 3兩 乾薑 2錢 煎服

(31) 砂仁一物湯 治臍中出血

貢砂仁末 以筆筒 吹臍中出血處

(32) 加味乾薑湯 治左臂不仁 결리고 터지는 듯한데

白朮 7錢 乾薑 1錢 用之十貼

(33) 牽痰症

담에 발 두개 살너 세말하여 溫酒服 取汗卽效

(34) 痔疾靈藥

개헛바닥 2-3개를 취하여 불에 따뜻하게 지지서 當處에 자주 갈아 부치면 卽效

(35) 小兒肝氣神效乳滯腹¹⁴⁾痛驚風青便

真沈香 1兩 人蔘 唐木香 各2兩 貢砂仁 丁香
乾薑 甘草 各1兩 細末散服

(36) 嬰散湯 治肝氣驚風癇症如神

白芍藥 白何烏 1錢5分 人蔘 白朮 鱉甲 各1錢
半夏 青皮 砂仁 神麩 丹蔘 釣鉤藤 白僵蠶 乾
薑 甘草 各5分

(37) 五香丸

此方仙傳秘方

善能消息消積消痞消痰消滯消腫消痛 其效
如神

五靈脂 香附子 各1斤 黑丑 白丑 各 5兩 右末
蘿蔔子大爲丸 5~60丸 溫水下

(38) 治上焦症 頭痛 目痛 口舌生瘡效

川芎 1兩 蔓荊子 2錢 細辛 1錢半 半夏 甘草
各1錢 煎服 如神

(39) 治風濕脚氣 走注上攻 兩足拘急疼痛 或偏身痛

黑丑 2兩 青皮 1兩 胡椒 21粒爲末 蜜丸 梧子
大 白湯下 50丸

(40) 治心腹痞悶痛 兩脇氣脹 痰涎上攻 咽噎不利 能
行氣化酒食

黑丑 青皮 陳皮 乾薑 肉桂 各2兩 爲末 蜜丸
梧子大 每服 30丸 溫水下

(41) 治遠年腸癖下血

吳茱萸 2兩 川烏 1兩炒 黃色 爲末 醋糊丸 梧
子大 每服 50丸 溫水下

(42) 治肝癰

白芍藥 3兩 當歸 2兩 甘草 3錢 水煎溫服

(43) 治腰痛

白朮 3兩 胡桃 2兩 杜沖 2兩 破古紙 5錢 爲末
蜜丸 每日 3回 溫水下 50丸

3) 少陽人 處方 13方

(1) 治浮症 牛肉滯 酒滯 食滯

山茱萸 1兩 牛蒡子 5錢 煎服如神

(2) 治補氣不燥不熱

熟地黃 菟絲子 各 1斤 爲丸 服

(3) 治肺經生癰瘍

金銀花 5兩 元蔘 1兩 煎服如神

(4) 治陽癰陰疽勿論何處

金銀花 4兩 蒲公英 2兩 天花粉 5錢 水煎服

(5) 治目痛

柴胡 防風 黃連 各5錢 水煎服 洗眼 1日3次效

(6) 治耳聾

六味地黃湯 加 柴胡 5錢 枸杞子 3兩 爲末 丸服

(7) 治風痰上攻 頭目眩昏 咽喉痛

荊芥 牛蒡子炒 薄荷 各 1兩 爲末 溫水下

(8) 治一切煩熱 口乾作渴 飲水 以此解之

知母 1兩 煎服如神

(9) 治幼年心洛爲暑所傷 每至暑畏熱困倦減食

知母 地骨皮 柴胡 各3錢 大麥 1撮 水煎服

(10) 治胃脘痛症

射干 梔子 赤茯苓 熟地黃 各3錢 煎服

(11) 治黃疸

苦蔘 半斤 爲末 小豆大爲丸 50丸 溫水下

(12) 治風熱短氣痛神方

羌活 防風 柴胡 薄荷 黃連 各3錢 煎服如神

(13) 治結陰症 主便血

地榆 4兩 煎服如神

14) 服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에 痛이 연결되어 腹痛으로 변경함.

IV. 考察

동무 이제마선생의 『東醫壽世保元』 간행 이후 사상의학 관련 서적이 다수 출판되었는데, 그 중 元持常의 『東醫四象新編』은 관련 서적의 출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東醫四象診療醫典』, 『東醫四象 錦囊寶訣』, 『東醫四象要訣』, 『四象醫學要覽』이 출판되었다.

그 중 『東醫四象 錦囊寶訣』(이하 ‘錦囊寶訣’)은 朴炳吉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1958년 씌어지고 1961년 杏林書院에서 출판되었다.

『錦囊寶訣』도 『東醫四象新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졌으나, 저자 박병길의 사상의학적 입장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가령, 四象正見表라는節을 두었는데 이는 ‘사상을 바르게 보자는 취지라고 이해가 된다. 그 내용은 필자가 체질진단을 하면서 드러난 사상인의 특징을 기록하였다.

태음인 체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둥글둥글한 체형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쌍꺼풀 눈을 언급하였고, 熱多人과 寒多人을 나눠서 설명하였다. 태음인을 진찰할 때 이미 胃脘寒證과 肝熱證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한 것으로 이는 『동의수세보원』에서 面色白靑者, 面色黃赤黑者로 구분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또한 면색이 검고 붉은 사람이 흰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소음인의 체형은 긴 얼굴의 형태와 방광이라고 표현한 엉덩이 천골부분이 뒤로 뾰족하다고 하여 체형이 앞으로 굽은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寒熱에서는 명치나 수족이 찬 편이며, 性情의 관점에서는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한다는 점을 기록하였다. 피부색에 대해서는 누런 사람이 많고 흰 사람도 있으며, 기육이 부드럽고 연약하다는 점을 기록하여 『동의수세보원』에서 소음인의 기육이 浮軟하다는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소양인 체형에서는 어깨가 넓고 가슴 흉부가 벌여져 있으며 하초가 허하다고 명확하게 지적하여 『동의수세보원』⁵⁾의 胸襟之包勢가 盛壯하고 膀胱之坐勢가 孤弱하다는 내용을 한글로 설명하였다. 이목비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눈이 크고 쌍꺼풀 눈이 많다고 하였으며, 코가 매부리코에 콧등이 날카롭고 뾰족하다 하였다. 걸음걸이가 빠르다고 하여 소양인의 足輕을 설명하였고, 외교술이 좋아서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좋아한다 하여 소양인이 事務에 능하고¹⁵⁾, 밖으로 나가 事務를 興하게 하는 재주를 설명한 부분과 일치한다⁶⁾. 소양인의 피부색에 대해서 흰색과 붉은색의 사람이 있다 하여, 흰색은 약한 편이고 붉은색은 튼튼한 편이라 하였다. 이 내용도 태음인 부분과 마찬가지로 흰색은 脾受寒證, 붉은색은 胃受熱證을 감안하여 체질의 진단과 동시에 병증의 진단까지 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라 보인다. 소양인의 피부는 갈갈하다고 하여 소양인의 몸속 열기에 의해서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느낌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본인이 다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실제적인 임상 경험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특징은 諸病主藥回春 부분으로서 약재의 효능을 간략하게 絶句 형태로 만들어 놓아서 암송에 편리하게 한 면이 있다. 이 내용은 사상체질에 적합한 약재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후세방에서 사용되는 약물들의 主藥 개념으로서 정리된 부분이다. 아마도 당시에 많은 한의사들이 『萬病回春』의 主藥 부분을 암송하고 있었기에 錦囊寶訣을 기록하면서 편입시켜 놓은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萬病回春』과 비교한 결과 오타나 누락이 있어서 傳寫의

15) 東醫壽世保元 17-3 太陽人性質長於疏通而材幹能於交遇, 少陽人性質長於剛武而材幹能於事務, 太陰人性質長於成就而材幹能於居處, 少陰人性質長於端重而材幹能於黨與.

16) 東醫壽世保元 3-14 少陽人重於事務故恒有出外興事務之衷心, 此心出於秉彝之敬心也, 莫非至善而不謹於居處故每爲主內做居處人所陷而偏衰傷臟以其重外而輕內故也.

오류나 암송하여 기록하는데 오류가 생긴 것이라 보인다.

네 번째 특징은 病名難經鐵鑑序인데, 五行의 관점에서 肝病, 心病, 脾病, 肺病, 腎病과 死病의 6개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 표로서 병증을 기록하였다. 이 부분은 일본 서적인 『難經鐵鑑』이라는 책의 卷之首 圖解부분에 나오는 표를 그대로 옮겨 오면서 일부 병증의 차이가 생기면서 본래 일본 서적에서는 162병증이라 하였으나, 실제 갯수가 167병증임을 확인하였다. 오행적 관점으로 병증을 이해하는 것은 사상체질병증과는 관련이 없으나 이는 당시의 상황이 앞의 『萬病回春』으로 질병에 대한 주약을 삼으려고 한 노력과 마찬가지로 병증을 오행으로 귀속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 번째 특징은 『錦囊寶訣』에는 『東醫四象新編』의 海松子論, 葛茸論, 血餘論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임상을 하는 저자가 보기에 처방이 아닌 잣과 칩,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으로 큰 가치가 없다고 여긴 게 아닌가 생각하여 제외했으리라 추측한다.

여섯 번째 특징은 저자 朴炳吉이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고 치료했던 처방을 기록한 것으로 소음인 처방 43개, 태음인 처방 18개, 소양인 처방 13개를 나열하였다. 처방의 주치증을 병증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소음인의 경우 병증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순위로 소화기계 질환이 나타나는데, 16개(38%) 처방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소음인의 偏小之臟인 脾局의 약화로 나타나는 질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음인의 경우 뇌신경계질환이 1순위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반신불수, 중풍, 두통, 현훈을 포함한 것이다. 『東醫壽世保元』 태음인편에서도 중풍에 牛黃清心丸과 瓜蒂散을 사용하는 예와 운동요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과 같이 태음인에서 중풍과 같은 뇌신경계질환을 주요한 질환으로 여긴 것이라 보인다. 태음인 처방 중 治眉落方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눈썹이 빠지는 경우에 桑葉으로 매월 씻어주면 1개월 후에 다시

거듭난다고 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한센병과 같은 전염병이 아닌가 의심이 되지만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소양인의 경우 1순위로 소화기계질환과 2순위로 오관과질환이 높았다. 소양인 병증이 주로 火熱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東醫壽世保元』의 내용과 같이 소화기질환에서도 癰瘍, 癰疽, 疔邪에 의한 손상과 오관과질환의 目痛, 耳聾, 咽喉痛, 정신과질환의 一切煩熱과 같이 火熱로 인한 질환을 주로 설명하고 있었다.

『東醫四象 錦囊寶訣』은 이제마선생 사후에 나온 여러 책들 중의 하나로서, 『東醫四象新編』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책의 독특한 부분으로서 사상인의 체형을 임상경험에서 설명하였으며, 후반부에서 임상에서 경험한 소음인 처방 43개, 태음인 처방 18개, 소양인 처방 13개를 기록하였다. 태음인에서는 주로 뇌신경계질환을, 소음인과 소양인에서는 소화기계질환을 주로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양인 질환에서는 외과, 오관과, 정신과 질환을 언급하면서 火熱로 인한 질환을 설명하여 소양인의 특성과 부합하는 질환을 설명하다고 생각한다.

필사한 것을 등사한 판본이라서 간혹 傳寫의 오류나 기록의 오류가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질환을 사상체질로 진단하고 처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임상경험방은 이제마선생의 新定方에 나온 것에 한정되지 않고 필자가 처방을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보인다.

V. 結論

『東醫四象 錦囊寶訣』은 저자 朴炳吉이 1958년 서문을 쓰고, 1961년 행림서원에서 출판한 사상의학 관련서적이다. 주로 『東醫四象新編』의 내용을 옮겨 적었으나, 사상인의 체형과 필자의 임상경험방을 기록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소음인 처방 43개, 태음

인 처방 18개, 소양인 처방 13개를 기록하였으며, 태음인 처방에서는 뇌신경계 질환, 소음인 처방과 소양인 처방에서는 소화기계질환을 주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VI. References

1. Won DP, Kwon YJ. Dongeuisasangsinpyeon. Seoul: MD World Publishing Co. 2008:27-343. (Korean)
2. Gong JH, Jin JP. Translated Manbyeonghoechun. Seoul:Bupin Munhwasa. 2007:76-82. (Korean)
3. Lee JM. Dongeuisusebowon. Seoul: Daesung Publishing Co. 1998:30. (Korean)